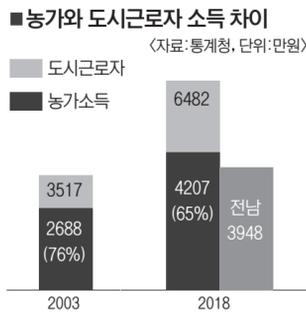


전남 농가소득 전국 평균보다 260만원 적다

지난해 소득 전년대비 0.5% 줄어 도시근로자보다 2534만원 적어 전국 농가·도시가구 격차 심화



도농 소득격차가 심각한 가운데 전남 농촌 가구의 소득이 도시 근로자가구보다 2534만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농가 평균 소득 간 차이(2275만원)보다 더 벌어져 '농도(農都)전남'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했다.

6일 국회입법조사처의 '농가소득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농가 평균 소득은 2003년 2688만원에서 지난해 4207만원으로 56.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도시 근로자가구 소득은 3517만원에서 6482만원으로 84.3% 늘었다.

15년 전과 비교하면 도시 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은 2003년 76%에서 지난해 65%로 줄어 들었다. 이는 도농간 소득 격차가 커졌다는 뜻으로, 농가와 도시 간 소득 차는 15년 새 829만→2275

만원으로 174.4%(1446만원) 증가했다. 전남과 도시 간 소득 차는 더 심각하다. 지난해 전남지역 농가 소득은 3948만원으로 전년(3966만원)보다 0.5% 더 떨어졌다. 반면 전국 평균소득은 지난해 쌀값과 한우 가격 등이 오르면서 전년대비 10.0% 늘어난 4207만원으로 2013년(11.3%)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전남지역 소득은 평균보다 260만원 적었고 소득 1위인 제주(4863만원)의 뒤를 이

은 경기 농민보다 903만원이 적게 나타났다. 전남지역 농가 자산은 전국 평균치(4억 9568만원)를 훨씬 밑도는 3억2652만원이었다. 농가 부채는 2433만원으로 전국 평균 3326만원 보다는 적었지만 전년(2246만원)보다 8.3%(약 186만원)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보면 농가소득 가운데서도 중심이 돼야 할 농업소득의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농업소득 비중은 2003년 39.3%(1057만원)에서 2018년 30.7%(1292만원)로 줄어 들었다. 그나마도 2017년 비중이 26.3%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가까스로 30%대를 회복한 것이다.

반면 농업보조금을 비롯한 이전소득과 겸업·사업소득을 포함한 농외소득의 비중은 커졌다.

2003년 농가소득 대비 이전소득 비율은 7.6%(203만원)에서 지난해 23.5%(989만원)로 경증 뛰었다.

농외소득의 비율은 2003년 35.0%(940만원)에서 2018년 40.3%(1695만원)로 증가했다. 농가소득 내에서 농업소

득과 농외소득의 비중이 뒤집힌 셈이다.

농가 경제의 흑자 또는 적자 여부를 판단하는 '농가경제잉여' 금액 역시 전업농가보다는 1종 겸업농가(농업수입이 농업외수입보다 많은 농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종 겸업농가의 농가경제잉여는 1479만원으로, 전업농가(650만원)의 두 배 수준이었다.

장영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농가경제의 흑자 또는 적자를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되는 농가경제잉여 금액은 전업농가가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며 "2-5ha 규모 농가의 농업소득 의존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소농·고령농 등 저소득 농가에 대한 대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올해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 목표를 내걸고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등을 통한 산지유통 강화 ▲농작업대행 활성화 ▲신소득작목 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박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전 광주전남본부 세계수영대회 전력공급 만전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본부장 임철원)는 오는 7월 12일부터 28일까지 14일간 펼쳐지는 '2019 광주 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성공적인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전 광주전남본부는 지난 2월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전력 확보 T/F를 구성하고 하이다이빙 경기장(조선대 축구장) 등 4개 경기장에 대해 공급배전선로 정밀진단 및 설비보강을 완료했다. 또한 한전 사회봉사단은 지난 5일 하이

다이빙 경기장을 방문해 공급선로와 조선대 후문 상가지역에 시설된 전력설비의 일제 점검과 전주 주변의 쓰레기를 치우고 부차된 불법광고물을 제거하는 등 미관개선 활동을 펼쳤다. <사진>

임철원 한전 광주전남본부장은 "대회 기간 모든 행사장에 긴급고장복구 인력을 배치해 불시 정전 등의 비상상황 발생에 대한 신속한 복구체계를 구축해 무결점 전력공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증권거래세 인하 1주일... 거래대금 되레 감소

"인하폭 미미해 효과 제한적"

증권거래세 인하가 시행된 지 1주일인 지난 가운데 증시 거래대금이 거래세 인하 전보다 오히려 줄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증권거래세가 인하된 지난 5월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4조799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거래세 인하 전 한 달간(4월 30일~5월 29일)의 일평균 거래대금(5조4360억원)보다 11.71% 감소한 수준이다.

코스닥 일평균 거래대금도 인하 직전 한 달간 4조3625억원에서 인하 이후 3조7825억원으로 13.30% 감소했다.

앞서 증권거래세는 5월 30일 거래분부터 인하됐는데 코스피·코스닥 및 한국장외주식시장(K-OTC) 주식의 거래세율(코스피는 농특세 포함)은 종전

0.30%에서 0.25%로 0.05%포인트 내렸다.

금융당국은 거래세 인하로 증시 거래도 활성화되기를 바랐지만, 아직 만족할 만한 효과를 못 보고 있는 셈이다.

물론 시행 1주일밖에 지나지 않아 거래세 인하의 효과 여부를 아직 단정하기에는 다소 이르지만, 일단 인하 초기에 뚜렷한 반응을 끌어내지는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미중 무역분쟁과 기업 실적 악화 등의 여파로 코스피가 2,100선에도 이르지 못하는 등 증시가 부진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거래세 인하 폭이 미미해 시장 반응이 냉담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주식 1000만원 어치를 팔 때 이번 거래세 인하로 줄어든 투자자들의 세 부담액은 5000원 수준이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13년 연속 세계 판매 1위' 기념 TV 할인

삼성전자는 13년 연속 세계 판매 1위를 기념해 다음달 31일까지 할인 행사 '대국민 TV 보상 페스티벌'을 한다고 6일 밝혔다.

삼성전자 TV 구매 시 최대 100만원 상당의 기본 혜택을 제공하고 브랜드,

연식, 크기와 상관없이 사용하던 TV를 반납하면 최대 30만원의 추가 보상을 준다.

행사는 오프라인 매장 전용으로, 삼성 디지털프라자, 하이마트, 전자랜드 등에서 진행된다. /연합뉴스



신세계 '푸드 플라자' 개장 '국전제과', '더솔' 등 지역 음식점 7곳이 참가한 (주)광주신세계 '푸드 플라자'가 6일 매장 지하 1층에 문을 열었다. 13년 만의 전관 리뉴얼의 하나로 선보이는 '푸드 플라자'에는 다음 달까지 맛집 21곳이 들어설 예정이다. <광주신세계 제공>

3D 프린터 활용한 창작공간 '메이커 스페이스' 광주·전남 6곳 추가 선정 12곳 운영

2억원씩 지원 공간·장비 구입

3D 프린터 등을 지원해 시제품 개발부터 창업 연계까지 추진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주관기관으로 광주·전남 6개 기관이 새롭게 선정됐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올해 메이커 스페이스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전국 57곳 가운데 광주 ㈜쓰리디테크놀로지 및 목포대 산학협력단 등 6곳이 이름을 올렸다"고 6일 밝혔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3D 프린팅을 활용한 디자인·목공 전문 창작활동과 제조창업을 펼칠 수 있는 창작공간이다.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메이커 입문 교육과 3D프린터 등을 활용한 창작 활동 체험에 참여할 수 있다.

광주는 ▲쓰리디테크놀로지 ▲광주시 청소년삶디자인센터 ▲코카리협동조합, 전남지역은 ▲목포대 산학협력단 ▲순천대 산학협력단 ▲여수공업고 등 지역에서는 올해 6곳이 선정됐다. 이들 기관은 '일반랩' 부문에 선정돼 기관당 2억원 안팎의 공간·장비 구축 및 운영 비용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난해 선정된 전남대 산학협력단(전문랩)과 오픈랩 주식회사-플리마코 협동조합·광주북구문화회지(광주), 청소

년자립터오늘·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전남)과 함께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총 12곳의 메이커 스페이스가 운영된다. 20억여 원의 예산 지원이 가능한 '전문랩'은 올해 지역에서는 뽑히지 않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65개 기관에 이어 올해 57곳을 메이커 스페이스로 선정하고 2022년까지 350개소까지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지역 및 기관 특성을 기반으로 스페이스 기능을 전문화하고 지역별·분야별 스페이스 간 연계를 강화해 새로운 메이커 협업모델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홈페이지 메이커올(makeall.com)에서 지역, 구비장비, 제공 서비스 등 원하는 조건을 검색해 예약하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재홍 광주·전남중기청장은 "우리 지역 메이커 스페이스가 12개소로 확충됨에 따라 메이커 활동 바탕이 본격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민 누구나 가까운 메이커 스페이스를 찾아 아이디어를 제품과 서비스로 구현하고 나아가 혁신창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회사 사정상, 신창동 근린상가, 급매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
- 4층중 2층 201호 전체, 준주거지역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 좋음
- 사무실, 병원, 헬스장등 모든 업종 오픈가능
- 감정/시세-11억
- 매매 - 7억 5천만원

문의. 010-6834-7400